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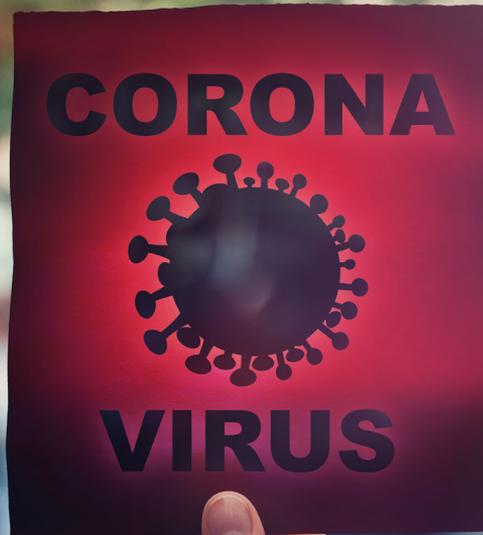
특집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와 사회

사람 사이 의료인과 기독교 세계관, 박경식, 황재석, 손대구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의사

청년, 삶을 말하다 한 과학도가 오늘을 사는 방식

문화로 세상 보기 바이러스 시대에 소망은 어디서?



Contents

JULY + AUGUST · 2020

시선

돈보다 사람의 생명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재난을 넘는 소망의 기도로 | 신국원 04

특집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와 사회

‘코로나 19’가 준 일상의 교란과 기독교적 의미 | 강영안 06

‘코로나 19’ 이후의 의료와 교회 | 류현모 08

‘K-방역’을 넘어 돌봄 공동체로서의 건강 도시로 | 강은정 10

‘코로나 19’가 전하는 역설 | 이상민 12

인식을 넘어 경청으로 :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교회 | 김승수 14

사람 사이

의료인과 기독교 세계관, 박경식, 황재석, 손대구 16

섬김의 자리에서

만남에서 변화까지 | 최현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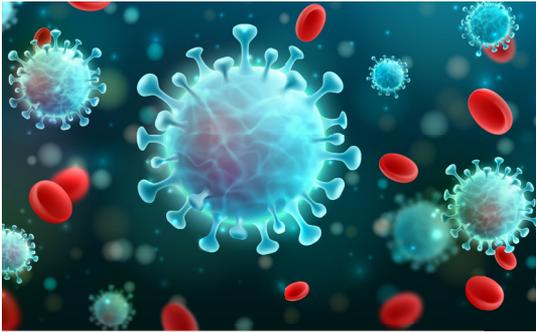


2020. 7+8월호 | 제7호(통권 222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백유미	22
한 과학도가 오늘을 사는 방식 최재돈	24
청년, 일터 이야기	
마스크를 부탁해 김혁민	26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적 허민영	28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바이러스 시대에 소망은 어디서? 추태하	30
미술을 보다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미술 서성록	32
책을 보다	
재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신국원	34
대유행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정국환	36
일반 은총 영역의 믿음과 분투 이종섭	38
<빈곤의 문제> 황영철	40

교회 路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성윤리연구소' 하진호	42
분당우리교회 '기독교성윤리연구소' 출판물 소개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	----



돈보다 사람의 생명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코로나 19’ 전염병은 그 영향과 충격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코로나 전 시대’(BC)와 ‘코로나 후 시대’(AC)로 구분될 것이라ں 말까지 나온다. 그 달라진 세상이 어떨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역사는 그들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고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따라 사회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으나 성과가 시원찮았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5세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라고 주장했다. 성경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고 지적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 교회 집회도 줄어들 것이라 걱정하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재앙이 무엇 때문인가를 발견하고, 재난을 기회와 자원으로

로 삼아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다.

우선 ‘코로나 19’ 전염병이 인재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중국인이 천산갑, 뱀, 밍크 등 야생동물을 잡아 먹거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박쥐와 공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지 않았을 것이고, 비행기, 크루즈, 유람선 등이 없었더라면 전염병은 우한에서 끝났을 것이다. 다양한 교통수단, 대규모 집회와 유흥시설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생 수준과 의료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감염자와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의 삶이 자연에서 너무 멀리 떠나 사람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인위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벨기에 817명, 미국 321인 반면, 대만 0.3명, 뉴질랜드 4명, 한국 5명으로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도 이 유행병이 인재란 사실을 보여주고 준다.

현대 사회의 인위적인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 재미를

위해 경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람의 생명도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어 있다.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한 유럽 국가들은 병원보다는 대규모 경기장이나 화려한 공연장에 더 투자했고, 의료인은 푸대접하면서 운동경기장이나 연예인은 후대했다. 감염병이 터지자 의료진도, 병상도, 의료장비도 모두 부족해서 환자들이 대대적으로 죽고 있다.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미국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주로 가난한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감염 확산이 확실한데도 앓다투어 봉쇄를 푸는 것이나 트럼프가 백신의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모두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정부들이 줄이려 하는 것은 희생자의 수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인 것 같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마 16:26)고 하셨다. 99명보다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 아무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기독교가 인류문화에 공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기본인권 사상이고, 생존권은 기본인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생명보다 중시하는 이 유풃론적 물질주의 문명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존중 사상을 꾸준히 강조하고 강화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확산은 이 물질주의 문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교회가 그것을 고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여지없이 폭로했다.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늘어났고 ‘코로

나 19’ 치료약과 백신도 조만간 개발될 것이다. 모두 돈을 중시하는 물질문명의 혜택이다. 그러나 그 덕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도 돈 때문에 일찍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감염전문가 퍼그슨(Neil Ferguson)은 ‘코로나 19’로 사망한 80세 이상 노인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평균 11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배금주의 문화 때문에 노인들은 억울하게 일찍 죽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는 돈보다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식이나 기술개발, 모든 사회정책은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유색인종이나 이민자,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지 않는 한 대면 관계를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을 강조할 의무가 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큰 단체인 복음주의 전국연합회의 공공정책 문서 ‘나라의 건강을 위하여’(FOR THE HEALTH OF THE NATION)는 정치참여가 “생명 존중, 빈민구제, 가정 존중, 인종 정의, 성적 순결, 자연보호, 평화, 약자를 위한 정의”의 원칙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미국 복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문화, 생활방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재난을 넘는 소망의 기도로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몇 달째 전세계가 영화 속 같은 ‘초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기독교적 안목을 통해 희망을 발견할 길을 찾는 데 도움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재난의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와 응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선>은 팬데믹이 풍요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에 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처조차도 생명보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보다는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금번 사태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나 이 특집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류현모, 강은정 교수님은 이 사태 이후 일어날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를 기반으로 교회가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바른 콘택트와 남을 돌봄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도 쉽고 회복의 장으로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영안 교수님은 이번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교란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간략히 정리해줍니다.

문화사회 전문가인 이상민 박사님은 팬데믹을 인류 스스로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문명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생태학적 책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김승수 교수님은 온라인 예배에 있어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 변화가 가져온 문화적이며 신학적인 함의를 통찰력 있게 분석해주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큰 고통의 현상이었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조성표 교수님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팬데믹과 싸움의 최전선에서 계신 박경식, 황재석, 손대구 장로님께서 생생한 기독교적 사랑과 돌봄의 현장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의미’를 들려줍니다. 아울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시91:6) 믿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도 주셨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거처로 삼는 신앙으로 이겨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 글을 써주신 최현일 박사님은 본 회 감사이고 필자로 섬겨 오신 동역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있다”는 자신의 의학 연구와 진료를 바라보는 안목의 변혁이 일어난 과정을 담은 실존적 간증이기도 합니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익혀가는 청

년들의 이야기가 이번 호에도 계속됩니다. 백유미 자매는 이 재난이 신천지와 n번방 음란물 사건과 이태원 클럽과 맞물려 있는 ‘영적 팬데믹’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일이 우리 각자의 몫임을 말합니다. 최재돈 형제는 물리학 연구 과정에 신앙을 갖게 된 과정과 달라진 삶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김혁민 형제의 일터 이야기는 자신이 약국에서 일하며 겪은 마스크 대란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허민영 형제는 온라인 예배가 가져온 변화의 경험을 통해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익숙함이 깨어져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나눕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이번에도 예언적 영화 <컨테이션> (2011)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소망을 회복하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서성록 교수님 역시 미술관이 ‘락다운’된 지금 ‘코로나 19’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미술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사람 없는 미술관’이 우리 삶의 취약성과 위험한 열망을 넘어 설 예술 실천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시인 이종섭 목사님은 카뮈의 <페스트>를 일반 은총이라는 코드를 통해 읽어내어 한계 상황 속에서 성실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이 황영철 목사님과 함께 소개하는 카이퍼의 <빈곤의 문제>는 고전이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엔 실천적 무신론자인 보수주의자와 이론적 무신론자인 진보주의자 사이에 정통 신앙과 진보 어젠더를 함께 아우른 지도자의 비전이 소개됩니다. 레녹스의 소책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로>의 분당우리교회는 그간 교계에 많은 신선

한 바람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찬수 담임목사님은 기독교 세계관이 목회에 중요한 축이었음을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소개 글을 쓴 하진호 목사님은 그간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진행해 왔으며 금번에 소개하는 성윤리연구소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청소년에게 성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잡지는 시의성이 생명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과 삶>이 신속하게 나올 수 없는 격월간이라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회원님들과 후원교회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송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료 없이 귀한 글을 써주시고 팬데믹과의 싸움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위원님들의 노고도 감사드리며 금번 특집호가 이 재난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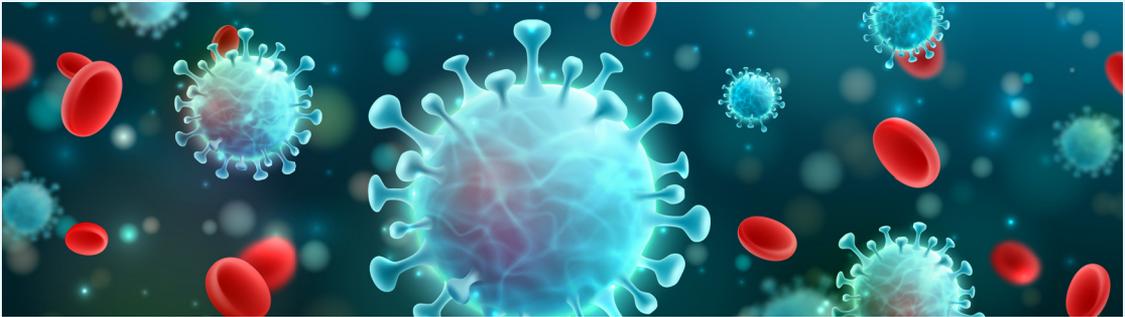


 글쓴이 신권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 네덜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코로나 19'가 준 일상의 교란과 기독교적 의미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철학신학 교수)



'코로나 19'(COVID-19) 사태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타격이란 말이 있다. 전염병으로 이토록 속수무책이 된 일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염병의 역사를 아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WHO의 통계를 따르면 현재(2020. 6.12)까지 7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4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 19' 사태는 무엇보다 '일상의 교란'을 가져왔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가고 학교로 가던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아무 걱정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를 마시던 일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게를 가더라도 물건에 혹시나 비말이 묻었을까봐 수건으로 닦는 일도 생겼다. 생각없이, 당연한 듯 진행되던 일상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멈춰서고,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대신, 과거에는 별로 하지 않던 손씻기를 틈날 때마다 열심히 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게 된다. 번역투의 말로 들리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이제는 토속어처럼 익숙해졌다.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던 일상은 우리를

푼어 안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 온 장소요 시간이었음을 이로 인해 다시 의식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사태는 일상뿐 아니라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이후, 인류의 소통과 교류는 눈부실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체체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코로나 19'는 우리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폭넓게 얽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얼마나 서로 자국주의에 빠져 있는지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적 거리'(National Distancing)가 조장되고 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사고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마치 모든 원인을 우리가 아는 척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할 일은 되돌아 보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애통해 하고 연대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인간의 탐욕이나 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

기 때문이고 고통을 당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이러스는 생존 환경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서 이웃 사랑이 시작한다.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과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라도 손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의 수칙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시적 예배 모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애쓰면 좋겠다. 이 가운데 특히 의료 현장에서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전화나 카카오톡, 스카이프(Skype)나 줌(Zoom)을 통하여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커졌다. 이 경험은 형제자매가, 같은 공간 안에서, 몸으로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가난과 저개발로 인해 의료 장비와 약품이 없는 나라를 돕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세계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서로 도와야 할 때이다. 강하고 잘 사는 나라는 인

력도 장비도 약품도 없는 나라들을 지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구상의 귀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명, 약자의 복지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

넷째, 일상의 교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의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없이 보내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함께 지내는 가족과 동료, 함께 사는 이웃과 동포,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세계 시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한다. 이번 바이러스는 숨이 목에 걸려 있는 인간의 약점을 공격한다. 숨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이며 허망한지 더욱더 의식하게 된다.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삼위 한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애쓰며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영만

서강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 명예교수와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철학신학(Philosophical Theology)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대 졸업 후, 벨기에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 칸트 철학회 회장, 한국 기독교철학회 회장, 고려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코로나 19' 이후의 의료와 교회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4월 11일 선언처럼 ‘코로나 19’(COVID-19)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예견되는 2차 유행의 우려로 인해, 직접적인 만남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향후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과 지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의료 분야에서는 첫째,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다.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 19’의 2차 혹은 3차 대유행을 예견한다.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홍보 강화와 공중보건 정책이 시행될 것이며, 개인들도 위생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실패는 경제위기와 직결되기에, 정부는 방역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차원에서 강화해 갈 것이다.

둘째, 비대면 원격진료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병원이 전염병 환자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로 시행이 미뤄져왔던 원격진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게 된 것이다. 일단 시행을 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입법화가 추진될 것이고, 시행되면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진료기록과 모든 검사 자료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될 것이다. 현재의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질문하여 환자의 표현대로 증상을 기록하고, 진단과 처방을 직접 문장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모든 것을 O, X로 답할 수 있는 질문 차트에 환자가 직접 체크하여 입력하는 형태의 디지털 차트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자료는 쉽게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기에, 개인의 향후 진료를 위한 기록뿐 아니라, 미래 의학 발전과 정부의 정책 설계, 또한 인공지능 의사를 교육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혈액검사 자료, 영상 자료, 병리조직검사

자료 등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 될 것이다. 또 향후 비대면 진료로의 변화 방향에 맞추어,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App들이 급속하게 개발될 것이다. 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들도 혈당측정이나 임신검사처럼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키트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원격진료에 응용될 것이다.

넷째, 개인 유전체 검사의 활성화와 데이터베이스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데 이것은 개개인이 가진 유전적 배경이 다른 까닭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해 개개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발견했고 이것으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설명 가능한 현재의 발견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체 검사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사회 전반의 언택트화로 개인 소외에 따른 정신질환이 증가될 것이다. 사람이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스마트폰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현실 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적 요소가 많은 사람의 정신에서 강화될 것이고, 이를 적절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회의 병적 요소로 축적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안전 추구,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화로 표현되는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각 가정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언택트 사회에서 고독한 영혼들이 가서 쉴 곳은 가정밖에 없다. "어떤 사회든지 그 구성원들의 '결혼과 가정의 상태'가 '사회 전체

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한 조지 길더(George Gilder)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시대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명한 사회기관이며 교회이다. 각 지역 교회들은 하나하나의 가정을 지교회로 생각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회복의 장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언택트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더 컨택트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더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 언택트로 인해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 하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역 교회에 더 크고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교회 전체의 성도 수와 무관하게 모임은 작아지고, 나눠져서 힘들고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가정과 소그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가정과 소그룹들이 언택트 시대에 참 진리와의 접촉점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가정과 교회는 쉼과 회복의 장이 되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더욱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류현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약리학교실 교수이다. BK 21플러스 치의학생명과학단 단장, 한국연구재단 선정 기초연구실 '근-골격 노화의 후성유전적 재생' 연구실 리더이며, <충돌하는 세계관>(데이빗 A. 노에벨, 2013)을 번역했고, 그 책을 교재로 교양과목 "세계관의 이해"를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K-방역'을 넘어 돌봄 공동체로서의 건강 도시로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Trace, Test, Treat.'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밀접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동시에 검사를 하고 확진자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 원칙을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이것을 실행한 나라가 없다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미리 갖추고 있었고, 진단시약 개발을 일찍부터 추진하여 대규모 검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서비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이 되었다.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공중보건 분야도 지금까지 서구의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한국의 'K-방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은 낯설지만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K-방역'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효산건강환경재단이 5월 초에 전국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개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음주 감소, 청소년의 아침 결식 감소 등 '코로나 19'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이외의 친구, 친척, 동료와의 만남과 연락이 감소되었고 외로움과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가사노동 부담의 변화는 거의 없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은 개선보다는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쪽이 더 많았다. 집안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량은 줄고 비만은 증가하였다.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코로나 19'는 이처럼 감염병 그 자체로서 뿐만이 아닌 수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숙제들은 개인들 서로서로의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것인데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을 가족끼리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인터넷 및 게임이 아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홀로 사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친지와 어떻게 연락을 자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고 가정, 즉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다.

한편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이 모든 책임을 안기에는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어주는 지역사회, 즉 도시 공동체의 연결망이 중요하다. 공동체 연결망은 우리가 정신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오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연결망이 강할수록 그 지역사회 주민들은 건강하다. ‘코로나 19’ 및 제2, 제3의 팬데믹이 닥칠 때 돌봄의 공동체 연결망을 확충하는 숙제는 바로 도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도시가 돌봄의 공동체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2:4)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를 실천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따름으로써 성도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 가정에서 정서적, 육체적, 물질적 돌봄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성도의 가정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고, 필요를 보았을 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연결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활동들과 이를 전달할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다. 신중 감염병 시대에는 이러한 활동들의 상당 부분은 비대면적인 매체를 통해 해야 할 것이고 이 돌봄 활동들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로 제공되어야 한다. 후자의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는 말씀처럼 돌봄 활동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도 돌봄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이 전화 등을 통해 노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활동, 노인은 청소년에게 지혜를 나누는 활동, 연령대별 실내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 집안이나 야외에서 함께 운동하는 동호회 모임을 운영하는 것,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공부, 주일학교라는 전통적인 교회 서비스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돌봄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부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학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환경부 소관 호산건강환경재단 이사이다.

'코로나 19'가 전하는 역설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맹위를 떨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때, 세계 곳곳에서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막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 통째로 봉쇄되기도 하고, 국가 봉쇄령과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며, 자가 격리되거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인간은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산업 시설 가동과 차량 운행이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줄어든다. 그런데,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고 멈추자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회복되며 사라진 동물이 돌아오고 아픈 동물마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난다. 그런데, 만일 '코로나 19'라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가 경제 성장을 전혀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갔을 것이다. 이는 바로 '코로나 19'가 전하는 역설이다.

물론, 산업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국내에서 및 국가 간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가

지 대두된 것은 사실이다. 그중 가장 참담한 현실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제한령이나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많은 국가, 특히 빈민층이 많은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끊기고 양식을 얻지 못한 수많은 빈민들이 아사 직전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외치면서,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발하며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식량을 구하는 실정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201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약이다. 미국은 이 협약을 탈퇴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해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라고 반응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미국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New America) 연구원 데이비드 웰스 웰스(David Wallace-Wells)는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적 근거를 토대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일어날 기후 재난의 심각성을 12가지로 분석하며 이를 경고한다. 즉, 살인적 폭염,

수확량 감소와 굶주림, 해수면 상승, 대규모 산불, 일상적인 기후 재난, 영구적 가뭄과 물 부족, 해양 생태계의 황폐, 숨 쉴 수 없는 공기, 광범위한 전염병의 전파, 기후 분쟁과 전쟁, 사회 시스템의 붕괴 등이다. 결국, 가장 심각한 상태인 5°C 상승 시에는 지구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한다. 이러한 미래는 이르면 30년 뒤에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다.

또한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쥬 라투슈(Serge Latouche)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연구팀의 연구를 토대로 한 ‘로마 클럽’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자연 파괴 같은 생물권의 재생 능력을 넘어서는 모든 활동을 조만간 중지하더라도, 21세기 말에 이르기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2°C 상승하게 되어, 해안 지역의 침수, 수천만 혹은 수억 규모의 환경 난민 발생, 심각한 식량 문제, 많은 인구의 식수 부족 등이 초래된다고 경고한다. 성장을 문제 삼지 않고 성장지상주의에서 빠진 모든 시나리오는 문명 붕괴에 이른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생할 수 없는 자원 위기를 이유로 붕괴 시기가 2030년경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경오염 위기를 이유로 붕괴 시기가 2040년경으로 설정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식량 위기를 이유로 붕괴 시기가 2070년경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가 전하는 역설은 인류 스스로가 자초하여 맞이할 수 있는 인류의 생존 위기를 경고한다. 특히, ‘코로나 19’에 허술하게 대처하여 엄청난 재앙이 벌어진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났듯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흐름은 망상에 불과하다. 또한 이 위기는 환경운동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화석연료가 뒷받침해 온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운명을 나누어진 전 인류가 협력하여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독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태학적 책임을 강조하고, 동물에 대한 돌봄은 물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게 여긴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인간이 자신의 유익에 모든 것을 종속시킬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소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소망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유일한 가능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그때문에, 자원의 낭비와 고갈, 환경 파괴와 자연의 황폐화, 물과 공기의 오염, 수많은 동물의 소멸을 방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진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성령을 받은 각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적 사명을 부여받는다. 요나는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든지, “아직 사십일이 남았으나 이후에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외쳤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에 요나처럼 외쳐야 한다. 물론,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듯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시대에 그 예언을 반드시 외쳐야 한다. 결국, 자신들이 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교회가 누룩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의 세력이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이다. 서울대 불어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불문학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룰의 여러 저서를 번역했고, 그의 사상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썼다.

인식을 넘어 경청으로 :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교회

김승수 (태국 쯔랄롱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 교수)



인간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마련한다. 의사소통 행위는 그 근본에서 사회적 인정 행위이다. 누군가의 말을 끊는 것이 '무례'(無禮)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자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리더는 자신이 공동체의 말을 독점하는 것을 우려한다. 말의 배분(독점과 양보)이 권력 관계 위에서 이루어짐을, 그리고 이를 형성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청'은 낮아짐과 섬김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경청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형적인 대화의 도식은 이렇다. '목사-장년-남자'는 '말하고' '성도-청년-여성'은 '듣는다.' 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예배의 꽃이 된 설교에서, 말은 전적으로 설교자인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매주 설교 '의례'를 통해 목회자는 말하는 발화자의 위치를, 성도는 경청하는 청자로서의 위치를 훈련한다. 즉 '말함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와 '들음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라는 '사목적 관계'(pastoral relationship)는, 매주

설교를 통해 수행되며 재생산된다. 설교의 공간인 예배당은 반복되는 설교 의례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각자의 위치와 서로 간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는 훈육(discipline)과 주체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제대(祭臺) 및 제단(祭壇), 성수대(聖水臺), 고해소 등 가톨릭 신학을 반영하는 공간을 없애고, 회중이 오로지 설교자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재설계했다. 개신교 예배당 앞쪽에는 한두 개의 단으로 높여진 강단이 있고 그 위에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있다. 강대상을 마주보고 장의자들 여럿이 열과 오를 맞췄다. 많게는 10명이 함께 앉는 장의자는 성도들이 예배 공간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억제한다. 다닥다닥 붙여 앉는 장의자에서 홀로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용 의자와 달리 장의자는 그 방향과 위치를 개인 임의대로 바꾸기 어렵다. 강단을 향해 그 위치와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장의자는, 설교가 마칠 때까지 성도들이 설교자

의 '음성'과 '시선' 안에 머물도록 강제한다. 설교자가 위치한 높은 강대상과 이를 향해 고정된 장의자들로 집약되는 예배당 공간에서, 성도들은 설교자의 '눈 안'에 더 쉽게 들어온다. 목사님들의 익숙한 말버릇처럼, 오늘 누가 오지 않았는지, 누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졸고 있는지, 강대상에 서면 "다 눈에 들어온다." 집단으로서의 회중이 개별 성도로서 '파악'되는 순간. 이런 목회적 '시선-파악'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 대한 특정한 개신교적 관심과 훈육을 반영한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인식이자 파악의 행위이고 이는 훈육의 기본이다. 개별 성도에 대한 '인식-파악' 없이 '진단'은 불가능하며, '진단' 없이 '영적 지도'와 '훈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현장 예배에서 작동해 오던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이와 같은 위계적 '시선-파악-진단-훈육'의 작동을 갑자기 중단시켰다. 성도들이 같은 시공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이들의 (육신 뿐 아니라) 영적 상태가 목회자의 '눈-시선-파악' 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온라인 예배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장의자가 아닌 자기 집 편안한 소파에 앉아 컴퓨터 혹은 TV 스크린을 마주한다. 원하면 그 화면 앞을 떠날 수도 있다.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즉각적 관찰, 파악 및 지도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미리 '지침'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한 훈육은 오롯이 성도 자신의 책임 아래 남는다.

주일날 성도들의 눈과 귀와 영덩이를 설교자에게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담임 목회자가 독점해 온 배타적 설교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장 예배 중단은 온라인에서 성도들이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도, 혹은 아예 설교를 듣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배가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경쟁'과 '선택'이 가능한 '시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예배당에서 매주 반복되어 오던 목사와 성도 간의 위계적 '발화-경청'의 의례가 불가능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의례가 재생산해 오던 목사와 성도 간의 위계적 관계 또한 균열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화의 다방향성(multi-directionality)을 전제로 디자인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배 경험이 축적될수록 일부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새로운 대화적 관계를 갈망 및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에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도, 성도들의 흐트러진 예배 자세도, 언론도, 국가도, 바이러스도 아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안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교회 자신의 나르시시즘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실직당하고, 기근에 시달리며, 폭동과 공권력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관심들이 오로지 교회 자신과 관련된 것 (현장예배 재개 여부와 시기 및 온라인 예배 방식 등등) 뿐이라면,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 '섬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단어들은 너무도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사태가 드러내며 심화시키는 사회적 모순들에 한국 교회가 더욱 관심 갖기를 바란다. 그 모순들 가운데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들의 자리를 사회 안에 마련해 나가고 이들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승수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미디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디어와 종교'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며, 방콕의 쭈랄롱꼰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미디어·문화 연구를 가르치는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다. 미디어·종교 연구 집단 미디어메이티드(Mediated)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인과 기독교세계관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전염병에 대한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으로 분류했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은 이번 '코로나 19' 국면을 잘 극복한 상징적인 기관 중 하나였고, 그 과정에는 현장에서 헌신한 그리스도인 전문의료인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제 그 현장의 그리스도인 의료인의 소리를 잠시 나누려 한다.



인터뷰 대상 박경식, 황재석, 손대구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의사 & 의대 교수)
인터뷰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정리&사진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조성표 안녕하세요. 박사님을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석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황재석 교수입니다. 신앙은 모태신앙이고, 의대 시절에는 '기독교학생회'(CMF), 졸업 후에는 '누가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대구기독의사회' 회장, 대구 달성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박경식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입니다. 1998년 내과 전문의 취득후 3년간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동산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지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성표 박사님들은 모두 이번 '코로나 19'(COVID-19) 사태 기간 중, 관심이 뜨거웠던 대구의 전문의료인으로서 섬

기셨습니다. 각자 그 섬기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황재석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7일 그 유명한 31번 확진자 이후, 대구 환자의 수는 급증했고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근무지가 성서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했고, 또 '대구기독의사회'를 통하여, 당시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과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보내주신 성금과 의료장비를 대구 5개 거점병원에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박경식 저는 사태 발생 전부터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 상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31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상황이 위급해진 후,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 감염환자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본원과 대구 동산병원의 현장 상근 근무를 병행하여오

다가 현재는 다행히 사태가 진정되어 성서 동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표 그러셨군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각자 섬기시면서 전문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박경식 31번 환자 이후 3월 10일 경 까지 대구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응급실로 온 환자가 확진되는 순간 병원 응급실을 2~3일간은 무조건 폐쇄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실제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이 한 때 다 폐쇄되었고, 환자들은 갈 곳이 정말 없었으며, 가까운 친척조차 아프다고 연락이 와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성표 그렇다면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도 말씀해 주시지요.

황재석 저는 역시 섬기는 ‘대구기독교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일인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개인과 기관이 참여해 주셨고, 그것으로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했던 ‘포터블 음압기’(이동형 장비) 등의 긴급의료장비들을 구입해서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단체, 의사, 간호사 등의 많은 자원봉사자 인력도 필요한 곳에 여러 번 연결해주었던 일, 그 중에서 특별히 전라도에서 오신 안과 의사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광주 지역 의료인들의 성금을 모아 대구에 전달하러 오셨는데요. 직접 대구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하시고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한동안 대구에 거주하시면서 현장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근무했던 소화기과의 한 동료 간호사는 인력이 절대 부족할 때, 자원하여 대구 동산병원 영안실에서 숙식을 하며 헌신하였는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박경식 저는 3월 초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정말 많은 입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 80대 어버님과 50대 따님이 동시에 입원된 가정에서, 아

버님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구 지역 모든 병원이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다급히 연결된 전주의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너무 바쁘고, 지쳐있었고, 제가 자원해서 왕복 5시간 동안, 방호복 차림으로, 호흡 곤란으로 몸부림치는 환자를 간호하며 다녀왔습니다. 수고는 있었지만 후에 잘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성표 정말 귀한 일을 섬기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명대 동산병원은 사립병원인데 어떻게 ‘코로나 19’ 국면에서 지역거점병원이 되었는지요?

손대구 우선 우리 계명대 동산병원은 1899년 북장로회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병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산병원은 이러한 역사를 지켜가고자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일제 강점기 때와 6.25 전쟁 때는 경찰병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에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2월 20일 대구시로부터 거점병원 역할을 요청받았을 때, 치열한 내부 구성원의 회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희생을 감수하며 모두 동의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신앙적 전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점병원이 된다는 것은 입원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이 코로나 19 확진 환자만을 위한 진료소로 전환한다는 의미였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2월 21일 출근하자마자 즉시 모든 환자분들을 설득해서 전원 이송했고, 오후부터 바로 코로나 환자들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고 멋지게 잘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모든 구성원들과 세상에 동산병원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전율을 느낍니다.

황재석 맞습니다. 우리 계명대 동산병원의 전신은 1899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 제중원입니다. 서울의 제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되었고, 대구

제중원은 계명대 동산병원이 되었지요. 따라서 동산병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실제 초기 역사를 보면, 1대 존슨(W. O. Johnson, 1899~1910) 원장님과 2대 플레처(A. G. Flecher, 1911~1941) 원장님 때는 한센씨병(나병) 진료소로 유명했고, 이 분들은 모두 의료선교사로서 환자를 직접 헌신적으로 돌보다, 말진 티푸스(존슨), 폐결핵(플레처)을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산병원 의료진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코로나 19' 상황에서 모두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성표 박사님들은 모두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요?

황재석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경고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삼 24장). 우리 인류가 모두 혹시 그동안 지나치게 교만한 측면은 없었는지, 또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 점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2세기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다는 역사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냥 불안해하지만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시 91:6, 9).

박경식 저는 아직 관련 상황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기에 성급한 결론이나 의미를 말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

어는 일부 교회들조차도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듯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에 도전하는 경향들이 있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인간의 나약함을 처절하게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표 ‘코로나 19’ 국면에서 교회의 현장 예배나 모임의 잠정 중지 등, 초유의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일부에서는 현장 모임 금지 권고를 종교탄압의 의미로 해석하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의료인이신 장로님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재석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번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본 자세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편지에서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각자 지 금서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삼아 한다는 의미였지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19’ 국면에서 우리 각자가 현재 세움 받은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간주하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 통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은 여기에 근거를 두면 좋겠습니다. 핍박받은 초대교회는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모였지만, 세상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디다. 우리의 모임이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모임조차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식 현장 예배를 통제하는 모습을 언론에 드러냄으로써 반기독교 정서를 자극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단연코 분노합니다. 다만 “반기독교 정서가 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 즉 왜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에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극복은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듯하

여, 기독교가 현장 예배 중심의 활동으로 쉽게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모임 활성화 등 상응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모임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노인들이나 소외 계층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하는 실제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전염병 해결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이 '접촉 금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당국의 현장 예배나 모임 자체 권고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조성표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의료체계, 메르스 등 과거 학습효과, 성숙된 시민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역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의료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황재석 어느 정도 안정은 되었지만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기에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인들과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통을 겪으신 모든 환자들과 환자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의료인들은 진료 뿐 아니라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읽고 해석해야 하기에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큰 수고만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식 잠잠하다가 다시 확진자들이 늘면서 마치 밟고 있던 얼음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라는 어느 선배 의사의 말이 실감 납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의료 환경에서 옆집에 덮친 격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십

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후의 보람은 마치 등산 후 산 정상에 선 것처럼 값지게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섬김과 노력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조성표 마지막으로 기성 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재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식 취업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설상가상의 재난일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어야 할지 난감하고 선배 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선물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질 점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재석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19'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감염되는, 이른바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이면서 변이를 유발하여 높은 전염력과 기저 질환이 있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높은 치사율을 보입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반복해서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시 91:3)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의지하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굳건히 믿게 되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FAITH & LIFE

만남에서 변화까지

최현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



“하나님, 당신께 나는 누구입니까?”

21세기가 시작되던 해. 나는 의과대학의 교수였으며, 아내와 딸을 둔 가장이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나이도 아니었고 내가 꼭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모태 신앙을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첫걸음을 땀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다.

의과대학의 교수직을 시작하고 약 일 년 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생각 없는 모태 신앙인이 이미 시작한 예배 시간에 느지막히 들어서고 있었다. “또 그 찬송가군...” 이라고 느끼던 순간, 나는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예배당은 상당히 견고하여 무너질 수가 없었다. 내가 무너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 오셨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은 그

렇게 오셨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 이제서야 그렇게도 기도하시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는 시간이었다. 변화되는 내 삶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진단 두 달 만에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그 두 달간, 나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 매일 병상 옆에서 시편을 읽어 드렸다. 그런데 위로하려고 읽었던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나는 새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이 다시 솟구쳐 올랐다. “하나님 당신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누

군지 확인해야 했으며,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수술과 진료와 학문은 무엇인지 알아야 했으며,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 싶었으며, 어머니가 보여주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했다.

의대 교수직을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줄 대상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우연인지(...필연이겠지) 서점에서 정근모 박사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맨 뒷면에 밴쿠버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소개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내용이 내가 찾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의 방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가기로 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생각을 거두고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 나는 전력하기로 작정하였다. 사직을 하고 짐을 꾸려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밴쿠버에 도착했고, 무의식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듯이 나의 잠 자고 있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강력한 치료제는 나의 사고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엮었고, 기독교 세계관이 주는 사고체계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가 되어 있다.

내가 기대어 숨 쉬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 있다. 책 속에 숨어있지 않고, 사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고 문제 해결의 빛이 되어 준다. 그런 감격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나의 세계관은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아 왔던 모든 지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내가 하고 있는 학문

과 진료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 눈으로 세상과 삶과 학문을 바라보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갖게 되었다.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의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는 설레임'으로 의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육신으로 입증된 우리 몸과 마음의 창조적 회복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있기를 소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이다. 샘여성병원 병원장을 지냈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수(부인과 중앙학)를 역임하였다.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 Certificate를 취득하였다. WHO 산하 아태지역 임상시험심의기구포럼(FERCAP)의 지역조사관과 보건복지부위탁(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교육위원회 과학계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백유미 (카이스트 뇌인지공학과 석사과정)

나는 학부에서 ‘체육교육학’과 ‘화학교육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바이오 및 뇌인지공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다소 낮은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학부 시절에는 대학교회와 선교단체 JOY에서 신앙을 배우며,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원 기독교 동아리 ‘렉스’(RACS)에서 전공과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한 비전과 캠퍼스 영혼들을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고 있다. 교회는 대전 충남대 근처에 소재한 ‘푸른나무교회’라는 개척교회를 다닌다. 이 작은 생명의 공동체에서 예배하며 다음 세대와 가정회복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온 세상 곳곳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일상은 안전을 위한 사람과 거리 두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모임과 교제는 옛 추억이 되었다. 교회의 현장 예배와 모임은 최대한 축소되었다.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들의 모습과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진 걸까? 평소에도 늘 있던 교회 문제와 사회 문제가 이번 사태를 계기

로 그저 드러났을 뿐인 건 아닐까?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생활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도 있었다. 물론 전에도 어떤 이들은 현장 예배나 모임에 함께하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한 여러 이유로 함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듯 서로 가면을 쓰고 외식하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또 교회 예배가 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요즘, ‘코로나 19’ 전과 후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예배 참석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골라 설교를 듣고 보는 것으로 대체하였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코로나 19’는 과연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할까? 오히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기회 삼아, 과거에도 늘상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영적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영성을 제대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서,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



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 19’ 이전에,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편하고 쉽게 현장 예배를 통하여 접하고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상의 밥상처럼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누리고, 교회의 좋은 서비스들을 받는 것에 익숙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영적 체질을 약하게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쉽게 중심이 흔들리고 맥을 못추는 어린이가 같은 미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에 각자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고 잘 진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기에 무더지고 무더져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동안 어쩌면 나병균처럼 우리 심령 속에 아무도 모르게 침투해서, 치명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 온 ‘코로나 19’ 같은 영적 바이러스들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와 율법 자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모임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진료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을 각자가 진심으로 다시 붙잡을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악적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으며,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비참한 존재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편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상상 이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신천지의 존재와 그 이단에 넘어가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 많은 20대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갈 곳을 잃고 있었으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영동한 곳에서 채우려다,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영적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터진 ‘n번방’ 사태는 어떤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얼마나 음란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었다. 절묘한 타이밍에 드러난 이 사건은 바이러스처럼 평소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그 끔찍한 성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최근 다시 이태원 클럽과 물류창고 등을 통해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해악적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 대적 마귀를 닮았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코로나 19’ 국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일까?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 적용의 방향은 오직 우리 각자의 몫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백유미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인지공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거쳐 화학교육과를 졸업했다. 학부시절 서울대 JOY 선교회 학생대표로 섬겼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 기독교동아리 ‘렉스’(RACS) 회원이다. 대전 푸른나무교회 청년이다.

한 과학도가 오늘을 사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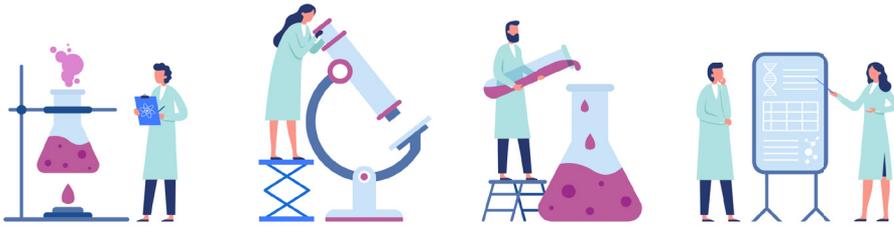
최재돈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과정)

나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소립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 주셨고, 심심할 때마다 별생각 없이 펼쳐 읽곤 했던 <분자 원자 소립자>라는 만화책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소립자 물리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당시에는 소립자의 종류나 소립자의 네 가지 기본 상호작용이란 것조차 전혀 몰랐지만, 그저 과학을 좋아했고, 왠지 물리학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고등학교 때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에 선발되어 국비장학생으로서 일본 츠쿠바대학 물리학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학자는 못 되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현실도 녹록하지는 않다.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여전히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스스로도 박사학위 자격을 갖춘 독립된 연구자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계속 연구 중이다. 물론 언젠가는 그 자격이 속히 갖추어지길 바란다.

나는 일본에서 석사과정을 마칠 즈음, 소립자 물리학 분야 중 ‘격자상의 양자색역학’(Lattice Quantum Chromodynamics)의 세계적 학자이신 지금의 지도교수님을 알게 되어 직접 찾아뵙고 지망하였고, 다행히

받아주셨기에 오늘에 이르렀다. 교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덩으로 받고 있다. 전공 지도 이외에도 매주 제자들과 함께 성경공부 인도로 섬겨주신다. 제자들이 단순한 과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간이 되기를 동시에 기대하면서 신앙 지도까지 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학생으로서 교수님의 엄한 지도와 훈련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종종 제자들을 정 말 아끼시는 마음이 느껴져 깊이 감사드리게 된다. 일본에서 석사학위 막바지에 정말 지치고 모든 걸 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신앙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나를 구한 것은 놀랍게도 페이스북에 한 그리스도인 청년 친구가 올린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나는 왠지 모르게, 앞으로 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좋겠다는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처의 ‘츠쿠바 성당’(내가 아는 한 그 지역에 개신교 교회는 없었다)이라는 곳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기도라는 것을 해 보았다. 그리고 성당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 숙여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등받이로 미는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비록 천주교였으나 귀국 전날에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귀국하여 공익근무요원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지금의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



고 말씀드렸고, 받아주셔서 그의 학생이 되었다.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수님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교수님의 전도로 나는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삶과 그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전에는 오직 학구적 성취와 세상적 야망을 위해 살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를 물리학자가 되어가는 과정, 또는 나의 사상적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만 삶의 목표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언제나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고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언제나 높고 깊으신 지혜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직 그 분께 나의 모든 미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최고 선택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믿음이 없었던 시절의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굴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 이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순간만큼의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내 인생 성경 구절이 된,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현재의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쉽게 얻는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그 가치도 대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 예수님. 그의 열매는 온 인류의 구속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어제보다 조금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이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재돈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격자게이지이론연구단' 박사과정 중에 있다. 일본 츠크바대학 물리학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을지로교회(예장통합) 아동부 교사, 압구정 소망교회(예장통합) 영어예배 찬양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마스크를 부탁해

김혁민 (약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나는 대전의 한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 흰색의 얇은 덴탈 마스크를 쓰던 버릇이 있어서인지 약국에서 소아과 가루약을 조제할 때면 그 마스크를 찾게 된다. 요즘은 색깔도 다양해져서 파란색도 그리고 검정색도 나오니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까지 한다. 대학원 시절 실험을 할 때면 분리·정제를 위해 ‘실리카겔’(silica gel)을 사용하는데 미세한 가루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자주 사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스크를 교체하곤 했다. 그리고 소아과 알약은 분쇄하는 과정에서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바쁠 때는 그 가루가 떠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루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목이 아프기에 마스크를 애용한다.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 한차례 잠잠한 시기가 도래하여 마스크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가족들이 쓸 정도만 구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탁할 것이 있다며, 친척 형과 친구들이 “마스크 좀 구할 수 있을까?” 하며 연락해 왔다. 그리고 보니 다시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당장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만 구해서 전달하였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마스크가 부족하진 않겠지 그리고 부족하면 바로 바로 구매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고, 곧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약국에 있던 마스크는 하나둘씩 품절이 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구매해가고 가격도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스크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나 자신이 약국에서 쓸 마스크조차도 구매하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약국에 들어서 마스크에 대한 문의를 하고 전화로 남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한때는 “마스크 없습니다.”라는 말만 하루에 수백 번을 하게 되니 녹음기를 틀어놓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을 거쳐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길게 줄을 지어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점차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상시 판매할 수 있게 된 후로는 점차 줄이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 그리고 KF80, KF94로 구분되는 황사 마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즐겁지만, 그 안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적이 많았음을 알았다.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영향



을 미쳐야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케이티 데이비스(Katie Davie Majors)가 지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Kisses from Katie, 두란노, 2012)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보려면 어둠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오히려 어두움을 직시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보아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친척 형이 다른 동료들 것과 함께 마스크를 부탁했을 때, 그리고 업체들을 많이 다녀야 하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또 구해주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을 발휘하여보시길 바란다.

이제 이러한 시간들은 어느덧 지나갔고,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조차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늘어가는 상황이라 여전히 걱정되는데, 왜 그런지 세상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한국 증시도 치솟고 있는 등 개치 않는 모양새다. 질병에 대한 무서움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압도하는 것 같은 이 국면이 우려스러워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욕심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스크를 부탁한 것처럼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우선 배려하는 삶을 함께 살자는 부탁의 외침을 전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그리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잘 생각하고 기도하며, 채워가는 삶에 대해서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혁민

대전에서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며, 약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약학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전 늘사랑교회(기침) 청년이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적

허민병 (대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

현재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아니다. 병원을 떠난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이 점차 무더짐을 발견했다.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모습이 아니었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주일예배를 매주 성수(聖守)하지 못하고 몸이 힘들다는 등의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나를 병원에서 나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익숙함에서 오는 매너리즘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상담기관의 간호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다. 주 업무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한다. 그리고 상담해주는 시간을 통해 나 역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익숙함이 촉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는 최근, 일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생겼다. 즉 요즘 대부분의 직장에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굉장히 낮는데, 내 일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 혼자였다. 그러다 보니 직장

안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사람은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외로웠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적이 다시 나를 공격해왔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나는 교회 생활에서도 종종 '익숙함'이라는 적에게 침투를 당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은 곧 교회 가는 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늘 강조하셨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생활 역시도 너무 익숙해져서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던 것 같다. '코로나 19' 정국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최근 대부분의 교회가 안전을 이유로, 주일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처음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웃을 것취 입고, 주어진 시간에 잘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지도 못하게 되자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 정국에서도 나는 온라인 예배가 2~3주 이상 지속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편하네?"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3~4번 드리던 예배를 1번으로만 끝내고, 목장



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없어졌는데,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네...” 하는 마음이 생겼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후 큐티, 말씀 묵상 등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었다. 주여 어찌할꼬.

나는 요즘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이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전 속해 있는 청년부의 예배 후,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고(故) 이관희 집사님의 투병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 나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식어있는 모습을 반성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영화에서 고(故) 이관희 집사님은 투병을 하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영적으로 죄와 처절히 싸웠다. 특별히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소원해졌던 나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졌다. 지난 2~3개월 동안 영락없이 편안함과 게으름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많이 부끄러웠다. 비로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과 회개를 참 많이 하였다.

나의 경우,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적은 종종 편안함

을 주지만, 점차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여 죄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킨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마9:17) 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해악들을 경계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아멘. **FAITH & LIFE**



 글쓴이 허민병

대구 동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이다. 경일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대구가톨릭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1년 근무 후 현재 직장으로 옮겼다. 대구 성덕교회 청년이며, 청년부 찬양팀 리더이다.



바이러스 시대에 소망은 어디서?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



〈컨테이션〉
(2011. 소더버그 감독)

영화 〈컨테이션〉

〈컨테이션〉(2011. 소더버그 감독)은 정말 놀라운 영화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온 작품이 2020년도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마치 줄베른의 해저 탐험소설이 시대를 훨씬 앞서갔던 것처럼,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 비극은 이미 오래전에 등장한 시대사적 문제였다. 일차 세계대전(1914-1918) 때 생화학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군인들이 상해를 입었다. 100년 전 일이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 잠재해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고 인류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바이러스 연구를 폐기했어야 했다. 더구나 전쟁용, 살상용으로 극단의 변종 바이러스 실험은 전적으로 폐기했어야 했다. 핵폭탄 제조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으나 인류는 여기서 낙심하고 무릎 꿇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

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야기된 혼란을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영 후 10년 뒤 재연

미치 엠호프(맷 데이먼)는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가장(家長)이다. 아내는 홍콩 출장을 다녀온 후 이상 징후를 나타냈고,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한다. 게다가 아들마저 감염되어 끝내 숨지고 만다. 엠호프는 이제야 미디어가 실어나르던 지구촌 다른 지역의 문제인 줄 알았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자신에게 직접 연관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만다.

지역은 봉쇄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떠다. 개나리 추출액이 치료에 효과 있다는 소문이 떠돌자 수많은 인파가 마트에 몰려든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에 약탈에 폭동으로 번진다. 하지만 개나리액 효과는 가짜뉴스였다. 봉쇄로 인해 사재기는 극성을 부리고, 군식량 배급마저 역시 부족하니 사회는 집단 히스테리적 증상에 빠져든다. 시민들은 바이러스 블루(Virus Blue)로 우왕좌왕 중심을 잡지 못한다(현재는 코로나 블루).

우리나라 경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약탈, 폭동은 물론, 사재기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 정신이라 하겠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영화같은 장면이 재연되기도 했다. 지역 봉쇄는 물론이고 불안,

분노로 인해 사재기, 약탈 등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각국 정부, 질병관리기관은 재빠르게 움직인다. 군(軍)은 병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비상식량 배급으로 시민 봉사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감염 정보와 경로 확인에 전문가를 동원하였다. 2020년도 세계보건기구가 얼마나 정의를 위해 처신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영화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제약회사들도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이러스 전염사태는 제약회사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백신 개발은 인류 보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기에. 바이러스는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이 우선이지만 배후에는 음모론이나 정치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영화에서나 지금의 현실에서 아주 배제되지 않는 사실이다.

우리도 '코로나 19'를 두고 정치적 손익 계산에 버금가는 논쟁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익을 본 집단이 있었기에 말이다. 신천지로 인해 기성교회에 가해진 공박과 비난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다.

회복의 소망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원이 오염된 돼지고기로 보여준다. 홍콩의 한 호텔 주방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는 주방장, 요리사, 바텐더, 종업원, 고객들 접촉 등으로 삽시간에 확산되었다. 이렇게 접촉된 감염자들은 세계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증상이 드러나기 까지 어느 누구도 치명적 바이러스가 일상생활 속으



로 그렇게 침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제2, 제3의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사회적으로 의료적 조치는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의료진의 처방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

기, 밀폐공간 피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조한다. 여기서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둘째, 사회적 불안과 일명 '코로나 블루'로 보이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교회 자체도 모임 자제라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대처 방법을 최선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나 개인적 심리장애를 교회 차원에서 접근해갈 때 치유 방법이 찾아질 것이다.

셋째, 이제는 겸손히 인류의 영적 실상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살전 5: 19, 20).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미래 시대에 성령과 예언은 어떻게 인간의 길을 인도할지 기대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창 1:28)만 섬기고 순종할 때 회복의 소망은 다가올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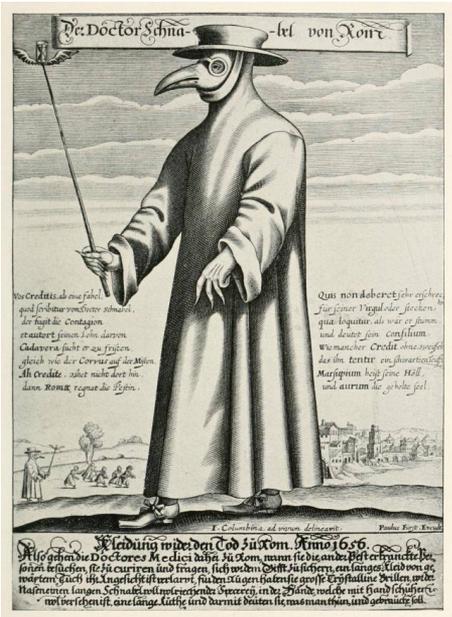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 로도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미술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판화 <닥터 슈나벨>(Doctor Schnabel von Rom, 1656)은 전신을 단단한 보호복으로 감싼 한 의사가 새부리를 한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찾아나선 장면을 소재로 하였다. 이것은 17세기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흑사병 의사가 실제 착용하였던 복장이라고 한다.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보호복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한번 감염되면 수일 내



판화 <닥터 슈나벨>1656. 영국박물관 소장

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니 심리적 공포감이 대단했을 것이다. 지금도 전염병의 영향은 실로 막강하다. 모든 사회 영역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필자는 미술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한국의 미술계는 6.25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미술 인프라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작가, 화랑, 애호가 가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술 문화를 조성하였다.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미술계를 이끌고 미술 시장이 작가들을 뒷받침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술품을 재화의 가치로만 보는 시각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전시문화는 온갖 ‘아트페어’나 ‘미술 경매’로 바뀌고 작가 군(群)도 크게 ‘팔리는 작가’와 ‘안 팔리는 작가’로 양분되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옥션에서 누구의 작품이 얼마나 올랐고, 최고가를 경신했는가를 알다투어 소개한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말한 ‘시장 사회’(a market society)로 편입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간에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야겠다는 조금함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과연 그것이 옳았는지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미술계의 몇몇 달라진 양상도 주목된다. 국내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온라인 뷰잉룸’, ‘버추얼 투어’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작

가들이 ‘줍’과 ‘스카이프’ 등을 이용해 대중과의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작가가 다른 작가 3명을 지명해서 그들을 소개하거나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게시하는 ‘아티스트 챌린지’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전시를 열기도 했다. 격리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상업화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에서도 삶을 나누는 시도들이 있었다. 런던 왕립 미술학교에서는 ‘#RADailydoodle 프로젝트’를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다른 트위터에서도 비슷하게 ‘두들 챌린지’(Doodle Challenge)를 시도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햇빛이 충만한 멋진 날을 향유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날그날 일상의 모습을 스케치한 작품을 올려놓았다.

“사람들과 실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술관에 있는 사회적 공간을 놓치고 생활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적절치 않게 처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미술관 문을 열게 된다면, 이를 고칠 수 있게 되겠지요.”

영국 테이트 갤러리의 프란시스 모리스(Francis Morris) 관장이 한 말이다. ‘코로나 19’ 감염증 이전만 해도 전시장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당연시했거나 막상 미술관을 락다운한 뒤에야 얼마나 그들의 존재가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사람없는 미술관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코로나 19’는 그간 우리가 그토록 애

를 쓰고 획득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균형 감각을 잃기 쉽다.



스트레이트 타임스(2020년 3월 14일자)는 ‘명예로운 새로운 배지’라는 제목으로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들의 사진을 게재했다(출처 AFP).

그러므로 현재의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그것이 우리의 ‘위험한 열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주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데에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와 물질의 풍요로움에 안주하는 것을 극복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종과 국가를 넘어 연약한 지체와 타인을 이해하는 예술의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쓰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재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공상의 영화 속처럼 초현실적인 분위기”다. 엘리엇(T. S. Eliot)의 말처럼 2020년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특히 영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상태다. 옥스퍼드 대학의 변증가인 존 레녹스(John C. Lennox)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말빠르게 펴냈다.

팬데믹 공포에 떠는 세상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이 모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통제 불가능한 힘에 노출된 지금 “공황과 히스테리에 빠지는 것”을 피할 방안이 있는가? “과거에는 서양에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고 국가 지도자들은 기도를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현상을 지금은 보기 드물다.”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 사태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할 것을 권한다. 상황 이해가 절실한데 온종일 쏟아지는 뉴스와 통계는 불안만 가중시킨다. 의료진과 당국의 권고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 특히 “왜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남았는가?” 같은 깊은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없다.

더욱이 질병,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 재해는 ‘악’의 존재에 관련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누가 죄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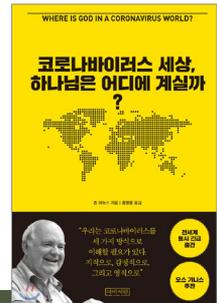
천벌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에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재해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저자는 이 난제와 “씨름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재난과 악의 문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연적 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무신론이라고 생각한다.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우주에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단지 맹목적이고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런 태도가 합리적 반응이 아니며 팬데믹에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도킨스도 테러를 악한 것으로 비난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선’의 표준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나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고통과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희망이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 무신론적 세계관과 범신론적 세계관, 그리고 회의론과 불가지론은 자연 재해를 이해하거나 대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이해하려면 “바이러스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물의 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바이러스는 무기 영양소 재순환의 중요한 일부로 우리의 존재에 필수적이다. 지구상에 존재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 존 레녹스 | 홍병룡 역 | 아바서원 | 2020



하는 일억 유형의 바이러스 중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21가지로 지극히 작은 일부이다. “하나님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은 “위험하지 않은 전기나 타지 않는 불을 만들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과 본질상 같은 씨름을 제기한다고 했다. 악이 없는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도 없는 세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와 창조세계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울러 인간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깨뜨렸다. 특히 선진국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한 오만이 확실히 깨지고 있는 중이다.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 가는 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증거인 복음을 통해 이 팬데믹을 살펴볼길 권한다. 복음이 주는 답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쓰신 코로나(가시면류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셨음을 증거한다. 부활의 복음에는 “우주를 창조해 지탱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평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새로운 삶, 장차 고통이 없는 세계에 대한 약속”이 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팬데믹이 “엄연한 진실을 상기시켜”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큰 확정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재난

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목적을 이룬 셈이 되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점에서는 기독교와 경쟁할 만한 철학이나 종교가 없다”고 단언한다. 천국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은 팬데믹의 와중에도 평안을 줄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이런 희망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강권한다. 기독교는 이런 믿음으로 지난 2천 년 동안 유행병을 대처해 왔다. 로마의 박해 하에서 제국의 4분의 1을 죽일 뻔한 2세기 안토니우스 역병이나 키프로스 역병은 오히려 기독교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왔다. 기독교인들이 “병자들을 돌보고 역병은 변덕스럽고 화난 신들의 작업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반역한 깨어진 창조 세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영적 모델을 제공”했던 것이다. 저자는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 2020년 여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 네덜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대유행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정국환 (선교단체 DFC 전라지역 대표간사)



얼마 전 CNN의 뉴스쇼 ‘아웃 프르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방송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신들은 무적이 아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집에 머물라”고 호소했다. 저자는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유행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COVID-19 대유행병과 기독교>를 출판했다.

이 책은 다섯 단원으로 유행병의 보편성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유행병을 살펴보고 성경적 입장을 예시로 마무리 짓는다. 1단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14쪽). 팬데믹은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라 한다. 이런 전염병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성이 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빈곤한 지역일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새로운 위협이 닥쳤을 때 패닉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팬데믹

을 관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진단 검사(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로 이어지는 이른바 ‘3T’ 체계를 구동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가 시행했던 ‘봉쇄 정책’을 배제하고 개방성을 기반으로 ‘예측된 위기를 조절’하는 뛰어난 ‘관리(management)’를 보여준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으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해 왔다. 2부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과 교회 역사를 바탕으로 한 대답이다. 첫째,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러한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예배 중에 발생하는 ‘코로나 19’ 감염도 심판으로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둘째, 말세의 징조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성경의 보편적 진리가 반드시 특수한 사건에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셋째, 질병과 세계적인 팬데믹은 모두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일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선부른 판단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5쪽).

3부는 팬데믹의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진술한다. 첫째, 하나님이 옫의 세 친구가 책망하신 바와 같이, 재난을 당한 개인의 비극



〈COVID-19 대유행병과 기독교〉 | 황을호 | 생명의말씀사 | 2020

이나 재앙이 반드시 그 삶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39쪽). 혹시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을 당한 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 존 레녹스(John Lennox)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는 나를 관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살피고 근신해야 한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불행은 없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부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일반 지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특별히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해야 하는가?”라는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병든 자를 돌볼 기회를 찾으라고 권면했다. 키프로스 역병으로 유명한 키프리아누스(Cyprianus) 역시 환자와 죽어가는 자를 돌보았다.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필요에 교회는 반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처럼 위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또 의료진과 관련 기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가 죽은 그

날 기독교 변증가 래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때에 살고 있다”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책이 자본의 관점에서 출간되고 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회는 이러한 시기에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요한 3서 4절, 6절)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COVID-19’는 일종의 바로미터일 뿐이다. 마치 최근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대처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평소 잘 몰랐던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확인시키며, 감동을 주고 있듯이,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역할을 찾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정국환

제자들선교회(D.F.C) 전라지역 대표간사이다. 전방위 캠퍼스 선교사로서 청년대학생 집회와 세미나 등에서 주로 ‘크리스천 리더십’ 및 ‘제자사역’을 강의한다. 또 매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청소년 캠프와 대학생 캠프를 직접 세우고 섬긴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청년부 사역자이다.

일반 은총 영역의 믿음과 분투

이종섭 (찬미교회 담임목사, 시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13~1960)가 1947년에 펴낸 <페스트>(La peste)를 살펴본다. 보통 때와는 다른 기준이 있다. 문학작품으로만 읽기보다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읽는 것이다. 역사학자 카(E. H. Carr)가 말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과 같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준이 더 있다. 과거의 문학작품을 통해 현 상황을 통찰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페스트>로 들어간다. 무대는 알제리 해안 도시 오랑이다. 죽은 쥐들이 나타나면서 페스트를 선포하고 도시가 봉쇄된다. 공포와 고통과 죽음이 난무한다. 전염될 수도 있고 전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를 만드는 상황이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의사 리유는 의술이 페스트와 싸우는 절대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랑에 묵고 있던 여행자 타루는 도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보건대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페스트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난다. 파늘루 신부는 페스트가 신의 징계라고 믿으며 회개를 촉구하던 중, 리유를 만나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다 죽음을 맞는다. 신문기자 랑베르는 오랑을 취재하다 페스트 때문에 오랑에 갇힌 후, 여러 번의 탈출 시도 끝에 보건대에 합류한다.

투쟁의 중심에는 혈청 개발과 방역에 힘쓰는 보건대가 있다.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며 희망을 추구한다. 인간성 안에 희망이 있다고 믿으며 페스트에 둘러싸인 부조리를 타개한다. “인간이란 누구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인간의 연대를 통한 희망으로 <페스트>를 통해 얻게 되는 일반적 가치다. <페스트>는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 은총의 가치와 의미를 그렸기 때문이다. 전염병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는 도피적 자세와 초월적 자세를 가지기 쉽다. 도피적 자세는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질병이나 고통을 회피한다. 초월적 자세는 그 상황을 전적으로 초월적인 신에게만 의존해서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 도피와 초월이라는 양극단은 일반 은총을 떠나 일반 이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이나 믿음 모두가 없는 자세를 버리고 질병과 고통에 맞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요,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성육신하신 방식이다. 세상을 떠나 도피하고 은둔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속화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다.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중요한 실행 명제가 있다. <페스트>가 말하는 성실성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노



〈페스트〉 |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역 | 민음사 | 2020

력과 투쟁으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성실성의 문제다. “이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비웃을지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더불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할 것이 더 많다”는 리유의 말은 인간을 신뢰하는 뿌리에서 나온다. 인간에 대한 신뢰야말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가 되면서, 동료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페스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신념이 된다. 성실과 신뢰는 고통을 극복하는 실제 무기로써,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필요하다. 성실을 추구하나 신뢰를 추구하지 않으면, 성실성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본질이 흐려진다. 신뢰를 추구하나 성실하지 않으면, 그 신뢰를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성실은 자신을 향한 자세요, 신뢰는 타인을 향한 자세라고 할 때, 자신과 타인이 연대해야 하는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 인간의 성실성과 신뢰에 따른 존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보존과 실행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인간 스스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허락할 수 있는 인간의 성실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불안하거나, 고통과 범죄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성실성과 존엄성의 본질을 실행할 수 있다. 한계에 부딪칠 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실과 존엄의 싸움을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자신의 지혜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 통치는 필연만 있을 뿐 우연은 없다. 우연처럼 보인다면 통치를 모르는 자의 어두움이요, 섭리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 통치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는 자크 엘뤼의 말과 같다. 기독교인은 거대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나 그 거대한 세계관의 실행과 나타남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작고 사소한 질서를 지키는 특별함은 그 가치를 되새겨볼수록 귀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종섭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 현양음대 작곡과와 합동신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지금까지 고양시 소재 찬미교회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신춘문에 당선 이후 세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과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쓰기와 문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정회원이다.

<빈곤의 문제>

추천 : 웨슬리 윈트어스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원래 이 해제란은 미번역 도서들을 대상으로 하지 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번역된 책을 선택했다 (국역: <기독교와 사회문제> | 조계광 옮김 | 생명의말 씀사). 첫째는 이미 번역 출판된 책이 거의 사장된 사 실 때문이고, 둘째로 이 책을 사장시키기에 너무 안타 깎기 때문이다. 이 서평이 이 명저에 대한 관심의 불씨 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영어본의 무게를 달아보니 115그램이었다. 하지만 책 의 무게를 어찌 물리적인 무게로 측량할 수 있겠는가? 감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 시 가르쳐 준다.

미국의 The Center for Public Justice에서 활동하던 제 임스 스킬런 (James W. Skillen)이, 초판 출판 100주년 기념으로 1991년에 이 카이퍼의 연설을 편집하고 앞 에 소개의 글을 덧붙여서 Baker Book House에서 115 그램짜리 책으로 출판한 것이 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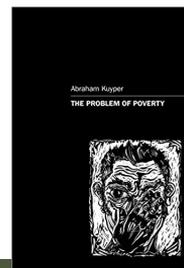
카이퍼가 이 연설을 행한 1891년은 유럽 사회가 극심 한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1867년에 출판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그 시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 여 준다. 산업혁명의 결과 축적된 막대한 부가 극소수 의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도시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단적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 었다. 카이퍼는 마르크스를 은근히 옹호하면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한시적인 유행이 아님을 경고 한다(53).

이 책 제목의 변천사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이 연설이 1891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을 때에는 <사회문제와 기독교>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1950년에 최초 영어판 이 나왔을 때에는 <기독교와 계급 투쟁>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그리고 1991년 판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제목으로 정해졌다. 이는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이 포괄 적이라는 뜻이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유럽 사 회에 만연한 빈부 격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의 본 질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이퍼는 먼저 빈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권고로 연 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 리는 현시대의 사회적 필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당시 유럽에서는 빈곤의 문 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무엇인가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저 항하면서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 다. 그런데 카이퍼는 신자의 행동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 빈부 격차의 뿌리를 설명한다.

가장 깊은 뿌리는 타락의 현실이다. 타락은 자연과 인 간에 대해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원래 인간은 번성하 여 사회를 이루며 자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자 연과 인간을 더욱 고상하게 향상시켜야 하는 존재로 출발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 는데, 타락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의 하

〈The Problem of Poverty〉 |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Jr. Kuyper) | Baker Book House | 1991



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죄악이다. 오류는 무지의 결과로서, 인간에 대해서와 사회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 내는 실책이다. 다른 하나인 죄악은 탐욕이라는 현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곧 빈곤이라는 것이다.

빈곤이 타락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곤에 대해 취하신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빈곤한 자의 편에 서심으로 빈곤의 현실이 고쳐져야 할 죄악임을 실천으로 보여 주셨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은 고래로 인간 사회의 항구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카이퍼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이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 도식은 비교적 간단한데,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이 두 가지 점에서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가운데서 발생한 개인주의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사회의 유기체적 공동체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신론에 수반된 철저한 현세주의가 현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어난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다.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민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국가사회주의

가 당시 빈부 격차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대해 카이퍼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회의 유기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카이퍼의 이 사상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정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내실이 건강하지 못한 보수주의와 이론으로만 앞서가는 듯한 진보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퍼 같이 정통 신앙과 진보 어젠더를 함께 아우르는 위대한 정치가를 가진 사회가 부러울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정치 철학과 사회적 실천의 조합은 칼뱅주의로 명명되는 개혁 신학의 장점이었다. 칼뱅주의가 그렇게도 많이 회자되는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날 날을 기대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코드다>(IVP), <겹손>(IVP), <구원과 윤리>(대장간), <성령과 윤리>(생명의말씀사) 외 다수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성윤리연구소'

— 분당우리교회 '기독교성윤리연구소' 소개

하진호 (분당우리교회 '기독교성윤리연구소' 담당목사)

'기독교성윤리연구소'란?

'기독교성윤리연구소'는 미취학 자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담임목사)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돕고자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연구소는 '성윤리'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다룬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아와 가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는 성경적 눈을 갖추도록 돕는 사역을 해 나갈 것이다.

무슨 일을 해왔나?

1) 연구 사례 발굴 및 소개

연구소는 기독교 성윤리 해외 연구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한 콘텐츠는 교회 내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번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번역된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성경적 관점과 이슈가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 <네 몸을 사랑하라> 북토크

낸시 피어시(Nancy Percy)의 <네 몸을 사랑하라>를 교회에 소개하였다. 기독교 출판사 '복있는 사람'과 함께 북토크를 진행하여, 강의와 대담, 질의, 응답을 통해 어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윤리를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영상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3) '우리 아이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번역 출간

미국 루터교 산하 킨콜디아 출판사에서 출간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교육을 위한 교재를 번역 출간하였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한 이 책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재의 특성과 강점, 핵심 내용, 인도자 가이드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자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 출간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각 대상에 맞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것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연구소가 추구하는 사역 방향이다.

‘우리아이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 결혼, 가정

3-5세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어떤 책인가? 미국 루터교 ‘컨콜디아 출판사’에서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에게 성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 주기적으로 수정, 증보를 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최신 버전이 번역 출간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 각자의 목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결혼의 순결함, 건강한 가정 등을 다룬다. 그러나 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구성이다.

6-8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책의 강점 남녀용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 아이는 남자 아이의 입장, 여자 아이는 여자 아이의 입장에서 읽으며,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게 한다. 또한 성교육의 정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거룩한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목양적인 태도와 접근도 인상적이다. 아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따라서 목양적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돌아올 길을 잃고 만다. 아이들의 고민을 공감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 논지이다.

내몸이 변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 번역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비판적으로 읽고 수용해야 한다. 개방적인 분위기의 미국에서 쓰인 보수적인 교단의 책이라도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핵심 주제에 더 집중하는 것을 권한다. 또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계속 수정 보완해 갈 것이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소화하여 자녀들과 대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 미취학자녀와 저학년 용까지는 직접 읽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청소년들은 직접 이 책을 읽고,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나눔을 갖도록 한다. 동성 부모가 동성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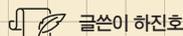
사랑, 성 그리고 하나님



미취학 자녀 대상 하드 커버 4권이며, 부모가 필요한 각 장의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읽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자녀 대상 부모가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읽어주고 대화를 나눈다. 성에 대한 관심이 큰 자녀라면, 질문마다 적절한 답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청소년 자녀 대상 자녀에게 책을 권해주고, 해당하는 주제와 질문들을 통해 대화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충분히 내용을 소화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분당우리교회 '기독교성윤리연구소' 담당목사이다.



〈신앙과 학문〉 관련

- 한국연구재단(KCI)의 실태 점검 대상

현재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중 샘플링으로 250개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학술지 실태 점검에 선정되어 실태 점검을 받고 있다.

- 〈신앙과 학문〉 25권 2호 (2020년 6월 30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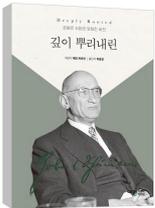
심상용(서울대 교수) 외 모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들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자료실 => 〈신앙과 학문〉으로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ISSN 번호를 발급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표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KCI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과 기관지 〈신앙과 삶〉의 온라인 ISSN 번호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표기하였다.

* 〈신앙과 학문〉 (Online) ISSN: 2713-9123, 〈신앙과 삶〉 (Online) ISSN: 2733-6069

실행위원 최용준 교수(한동대)의 번역서 발간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의 <깊이 뿌리내린>(예영, 2020). 저자는 2차 대전 이후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에 근거하여 지금의 평화로운 EU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학연 이사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대학원)의 신간 발간



강영안 교수의 <읽는다는 것>(IVP, 2020).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 성경 읽기와 삶의 거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이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고 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술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중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우중학(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아동청소년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 과정: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할 수 있다.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년 동안 40여 명의 교육생이 매주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어린이 & 청소년 세계관 강사 양성을 위한 과정도 개설 된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문의: CTC 사무국, 010-3673-8439).

- 온라인 청년대학생 '기독교 세계관' 교육: 아세아연합신학교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고,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문의: 02-745-7231, cupmanse@gmail.com



CUP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새 로고는 CUP(씨유피)를 CPU(씨피유)로 읽는 등 혼란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컵을 연상케 하는 컨셉으로 잡았다. 세상의 참된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값진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지향한다.



〈나이들의 신학〉
(폴 스티븐스 / 박일귀 옮김)

당시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0년 4월, 5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4월	2020년 5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4월	2020년 5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470,000	1,0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590,000	4,600,000
	임원회비	410,000	430,000		기타급여	670,000	600,000
	일반회비	4,921,000	4,973,500		소계	5,260,000	5,200,000
	기관후원금	2,950,000	3,1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10,490	112,010
	CTC후원금	80,000	70,000		우편료	27,090	9,170
	VIEW후원금	1,000,000	890,000		소모품비	17,000	1,300
	ES후원금	2,000,000	2,000,00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57,500	623,000		수선비	0	160,00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762,640	637,69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367,760	225,670
	기타	0	1,466,960		컴퓨터	1,511,930	0
					교육비	0	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27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56,200	225,480	
			기타(지급수수료)		120,835	120,120	
			소계		5,348,945	3,546,44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0
	법인이자	0	0		도서구입비	0	0
	법인세환급금	98,750	0		CTC후원금	78,900	78,900
	기타수입	0	0		VIEW후원금	1,091,970	991,970
	CUP매각대금	800,000	400,000		소계	1,170,870	1,070,870
	결산이자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0
	예수금	325,900	299,370		발송비	0	537,110
					소계	0	537,110
			기타	CUP기금적립	800,000	400,000	
				세금	25,070	0	
				잡비	59,400	0	
				소계	884,470	400,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10,000	35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350,000	800,000		학술지인쇄비	2,450,294	0
	학술지게재료	40,000	0		학술지발송비	753,11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1,200,00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초교비	0	0
소계	500,000	1,150,000	소계	4,403,404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887,235	944,50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44,505	862,280
	전월 이니시스입금	29,909	242,209		이달이니시스미수금	53,500	268,500
	소계	917,144	1,186,714		소계	998,005	1,130,780
당월 수입액		14,930,294	17,659,544	당월 지출액		18,065,694	11,885,200
전월 이월액		20,665,186	17,529,786	차월 이월액		17,529,786	23,304,130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0년 4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당, 손영일, 윤정, 이지연, 이찬수,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정, 송시섭, 유충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수인, 이준희,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주성탁, 7천5백 강찬진, 김지현, 박상근, 박성태, 방선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가용길,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고현경,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두환,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규,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도,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중일, 김중일, 김지남, 김진경, 김지근, 김진성, 김진호,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오상근, 모아른, 문제환, 박계호, 안기운,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른, 배지연, 백경은, 백석은, 백은진,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승철, 송철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천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일,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환,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희진, 이희진,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자,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진,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익, 최상열, 최성도, 최성호, 최수아,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원,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익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윤란, 김세광, 김순진,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박기모, 박상희, 박홍식, 배성민, 사호행, 손창민, 송찬호, 안선자, 엄준용, 오성수, 유지경, 유경상, 이강, 이기서,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태진, 문석운,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욱,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마민호, 우병훈, 이다닐, 조현미, 4만2천5백 김새별, 5만 김성천, 김중우, 김택호, 박정식,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이형직, 정은애,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연순, 김미혜, 박연규, 배은주, 석종준, 송수진, 정세준, 7만 박문식, 최태연, 홍판석,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업,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주경, 김판호, 최민범, 14만 김홍빈.

계 7,398,5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다문공동체교회, 세안학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세음교회, 마포중앙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계산제일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예수향남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5,000,000원

전체 12,398,500원

회원후원

(2020년 5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당, 손영일, 윤정, 이찬수,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정, 송시섭, 유충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수인, 이준희,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연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지현, 박상근, 박성태, 방선기, 이윤택, 이은순, 전보규, 전영식, 진영규, 홍성수,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고현경,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두환,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순진, 김순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규,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도,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중일, 김중일, 김지남, 김진경, 김지근, 김진성, 김진호,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오상근, 모아른, 문제환, 박계호, 안기운,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른, 배지연, 백경은, 백석은, 백은진,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승철, 송철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천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일,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엄준용,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환,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희진, 이희진,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자,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진,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익, 최상열, 최성도, 최성호, 최수아,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최희정, 추진원,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익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이경우, 정상섭, 2만 강윤란, 김세광, 김어은,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혜정, 박기모, 박상희, 배성민, 송찬호, 심은희, 안선자, 오성수, 유지경, 유경상, 이강, 이기서,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2만2천5백 백예은,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태진,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욱,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송태사, 우병훈, 5만 김성천, 김중우, 김택호, 박나리, 박정식,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이원실, 이형직, 정은애, 조지혜, 한윤식, 현은자, 6만 강구섭, 김성원, 서미경, 석종준, 심상용, 채수은,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손수경, 심정연, 양성만, 정진희, 15만 윤완철, 16만 조주경, 60만 정희영.

계 8,226,5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마포중앙교회, 세안학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세음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동교회, 18만 지생병원,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80만 수영로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5,330,000원

전체 13,556,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삼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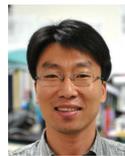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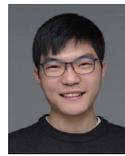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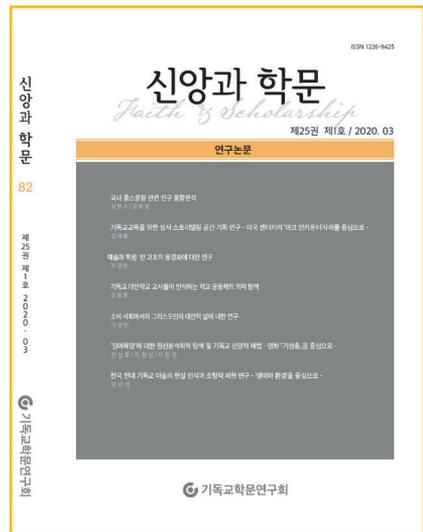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투고안내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학제간의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원고접수 마감일 :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 ◆ 2020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상세안내**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 **일반 문의** :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02-754-8004**
- **학술지 문의** :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